

# 55명 승객 실은 배스의 다이아 고속도로에서 폭발한 후...

## —길림성고속도로 교통경찰, 대형 버스 다이아 폭발사고 신속히 해결



경찰이 승객들을 안전구역으로 이송시키는 장면

출행 안전은 줄곧 공안교통경찰이 가장 주목하는 중요한 대사이다. 5.1連休 기간 길림성고속도로공안국 연길분국은 대형 배스의 다이아가 폭발한 사고를 성공적으로 처리하여 55명 승객들을 안전하게 이송시켰다.

5월 1일 15시경, 길림성고속도로 공안국 연길분국은 지휘센터로부터 “훈춘—울란호트 고속도로 훈춘 방향 86킬로미터 되는 곳에서 55명의 승객을 태운 흑A 번호판 대형 배스가

다이아가 갑자기 폭발했는데 다행히 부상자는 없다.”는 지령을 받았다. 경찰은 신속하게 현장에 도착해 처리에 나섰다.

현장에 도착하니 차는 응급차도에 세워져있고 배스의 오른쪽 뒤바퀴에는 폭발하고 난 다이아 껍질만 붙어있었으며 승객들은 길가에 서있었다. 때는 마침 5.1절連休 첫날이라 도로에는 차량이 비교적 많았다. 지나가는 차량들은 속도를 줄이며 길을 피하고 있었는데 도로 상황이 아주



폭발하고 난 버스 뒤바퀴

심각했다.

경찰은 한 사람이 후방에서 안전방호를 하고 다른 한 사람은 운전사와 승객들을 위로하며 도로보호막 밖의 안전구역으로 이송시켰다.

경찰이 료해한 데 따르면 차에 탑승한 승객들은 전부 외지에서 연변으로 여행온 관광객들로 로인이 위주였다. 승객들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경찰들은 관광회사와 연계하여 환적은승차량이 승객들을 안전하게 이송할 수 있도록 요구했다.

대략 한시간후 이송 배스가 현장에 도착했다. 경찰은 승객들을 안전하고 질서 있게 차량에 탑승하게 인도하고 안전벨트 착용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운전사와 승객들은 경찰들의 따뜻한 적시적인 봉사에 연신 감사를 표했다.

승객들이 떠난 후 경찰은 다이아 수리일군과 연계하여 고장난 배스의 문제를 해결했고 30분이 지난 후 배스는 안전하게 현장에서 철거했다.

고속도로 공안은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운전사는 차량 출발전에 다이아의 마모 상황과 공기압력의 정상 여부를 검사하여 다이아가 터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다이아가 파열되면 급히 브레이크를 밟거나 방향을 틀지 말고 가급적 교통에 영향주지 않고 안전에 영향주지 않는 비상주차대나 응급차도에 차를 세워야 한다. 또한 차량 후방의 최소 150미터 되는 곳에 삼각경고표지를 설치하고 인원을 도로보호막 밖의 안전지대로 철수시키는 동시에 24시간 경보전화 0431-12122에 전화를 걸어 도움을 청해야 한다. 반드시 ‘차를 오른쪽에 대고 인원을 대피시키며 즉시 경찰에 제보하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리전기자

/사진 연길시당위 선전부

# “산 좋고 물 맑은 연길, 인심은 더 아름답습니다”

## —연길 경찰 관광객 도와 신속히 아이 찾아줘

일정 아들딸을 데리고 연길 여행을 온 한 관광객이 배스정류소에서 잠깐 한눈을 파는 사이에 어린 아들을 잃어버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5월 2일 12시경, 하북 관광객 장선생은 배스를 타고 10살 되는 딸, 4살 되는 아들과 함께 연변대학 BRT 정류소에서 내린 뒤 환승 준비를 하였다. 장선생이 립간판을 살펴보는 사이에 아들이 없어진 것을 발견하고 급히 정류소 부근을 훑고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았지만 아이를 찾지 못했다. 이에 장선생은 110에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하였다. 경찰은 전화로 관

련 상황을 자세히 문의한 후 장선생의 하차 시간과 아이를 잃어버린 시간을 진일보 확인하였다. 짧은 시간에 아이가 사라졌다는 말을 들은 경찰은 아이가 차에서 내린 뒤 곧바로 다른 배스에 탔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정하였다.

경찰은 조사를 통해 당시 정류소에 정차해있던 또 다른 배스가 4선 배스였다는 것을 확인한 후 재빨리 이 배스를 뒤쫓아 다음 정류소에서 잠시 운전중을 정지시켰다. 그때 4선 배스에서 내살 좌우의 남자아이가 아바를 찾지 못해 울고 있었다. 배스 운전사와 마음씨 고운 승객들은 아이를

달래는 한편 가족들과 헤어질 이유를 내심하게 물어보았다. 자초지종을 들은 운전사는 아이에게 배스에서 내리지 말고 종점까지 가면 아버지를 인차 찾을 수 있으니 근심하지 말라고 달래주었다.

승객들도 끊임없이 아이를 다독이고 눈물을 닦아주면서 아이 옆에 앉아 ‘지킴이’로 자처했다.

10여분 뒤, 4선 배스가 종착역인 기차역에 도착하자 운전사는 차를 세우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였다. 얼마 후 연락을 받고 이곳에 도착한 연길 시교통순찰경찰대 하북 1중대 소속 경찰은 인차 장선생과 연락을 취하여

아이가 있는 곳을 알려주었다. 장선생은 현장에 도착한 후 아들이 무사한 것을 보고 너무도 감격하여 뜨거운 눈물을 글썽이며 연신 운전사와 경찰에 감사사를 표하였다.

한차례 아이 찾기 작전은 연길 사람들의 선량함과 열정을 려과없이 보여주었다. 사건 이후 장선생은 기자의 취재를 접수할 때 연길은 매우 매력적인 도시라고 소감을 말하면서 이곳은 산도 좋고 물도 맑고 인심은 더 아름답다면서 기회가 되면 꼭 다시 한번 연길에 오고 싶다고 하였다.

/연변조선신문



5월 8일, 국가의료보험국 공식측은 문장을 발표하여 ‘가족공제’(家庭共济) 방식으로 보험에 가입한 부모, 배우자와 자녀의 약을 구매하는 방법과 관련해 대답했다. 일부 네티즌들은 만약 ‘가족공제’를 통해 의료보험카드를 부모님의 고향, 당뇨병 등 약품을 구매했다면 구매 흔적이 남아 앞으로 중병보험, 의료보험 등 건강고지 사항이 필요한 보험에 가입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기지는 북경, 상해, 중경, 하북 장가구 등 여러 지역 의료보험국에 전화해 자문했다. 관련 직원들은 모두 ‘가족공제’ 방식으로 가족들의 약을 구매했을 경우 건강고지가 필요한 보험에 참가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답했다. “가족공제란 가족이 자신

의 의료보험카드를 지불했을 때 본인의 정산 비율을 누리는 것으로 계좌의 돈을 사용했을 뿐 진료사 구매 기록은 가족의 의료보험카드에 남아있고 본인의 카드에 남아있지 않는다.” 북경시 조양구의료보험국 직원이 말했다.

중국생명보험 직원도 가족공제 방식을 통해 가족을 위한 약을 구매하는 것은 미래 보험 가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표시했다. “진찰이나 약품 구매 명세서에 적힌 이름이 자신의 이름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면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가족공제 방식이 아닌 의료보험카드를 사적으로 리용해 가족의 약을 구매했다면 이는 기록이 남으며 보험 가입에 영향을 주므로 이런 방식을 권장하지 않는다.”

/인민넷-조문판

# 안도현공증처 ‘전국 공공법률봉사사업 선진집단’으로

## 최근년간, 안도현공증처는 실제에 립각하여 인민을 위해 봉사하고 사회를 위해 공헌하는 것을 취지로, 공신력 건설을 중점으로 전 현의 경제 발전, 사회 조화와 안정에 공증법률봉사를 제공함으로써 사법부로부터 ‘전국 공공법률봉사사업 선진집단’으로 선정되었다.

안도현공증처에는 현재 공증원이 5명이 있는데 평균년령이 35세이다. 이 젊은 공증원군 대오는 년평균 공증사건을 5,000건 처리하고 있으며 민중이나 상인과 관련된 사기, 계약 위반 등 불성실 행위의 발생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법에 따라 광범한 인민대중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있다.

안도현공증처는 공증의 공익성을 적극 부각하여 ‘독색통로’를 개설, 질병, 고령, 구류 등 직접 공증을 신청할 수 없는 당사자들을 위해 방문 봉사를 제공하고 있다. 련사가족, 군인가족, 현역군인, 퇴역군인 등의 긴급 공증 신청에 대해서는 특수한 일은 특별히 처리하고 급한 일은 급히 처리하면서 공증의 공익성을 부각시켜 매년 60여건의 비용 감

면 공증을 하고 있다. 정보의 상호 연결과 소통을 강화하고 증거 발급 효율과 위험 예방통제 능력을 높이기 위해 정보화 건설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신분증 식별기, 공증 수속 전용 소프트웨어, 하이샷 촬영기, 전국 블록체인 플랫폼 등 기술수단을 리용하여 가짜 인증 현상의 발생을 효과적으로 방지하였다. 공증원이 공증사건을 처리하는 시효와 공증증서의 온라인 검증 효율을 제고하여 사무단위 및 당사자에게 큰 편리를 주고 공증 수속 절차가 더욱 규범화되었다.

상속, 위탁, 공증 등 기존의 전통적인 공증업무에 기반하여 ‘행정집법+공증’, ‘금융업무+공증’, ‘부동산+공증’ 등의 새로운 공증업무를 적극 확장했다. 선후로 중국우정저축은행주식유한회사 안도현지행 등과 채권문서에 강제집행 효력을 부여하는 업무를 전개하여 은행업의 금융채권 위험 예방능력에 효과적으로 제고시켰다.

/오건기자



# 무료진찰 펼친 연변병원, 이혈치료로 불면증 완화



5월 9일 오전, 연변대학부속병원 중의간호전문팀은 연길에서 이혈치료 특별 자선진료 활동을 전개했다.

이번 활동은 연변대학부속병원 이 제 113번째 ‘5.12’ 국제간호사의 날을 맞으며 진행한 간호전문팀 계열 활동의 하나이다. 중의사 2명과 간호사 12명으로 구성된 의료팀은 수면장애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혈치료를 진행했다.

현장에서 의사와 간호사들은 환자의 귀를 안마해주고 혈을 눌러주고 혈에 종약파스를 붙여주었다. 약물을 통하여 귀부위의 혈자리를 자극하고 경락을 소통시키며 오장육부의 기혈 기능을 조절해 신체의 음양평형을 촉진하고 질병을 예방하며 불면증상을 개선시켜주었다. 이날 오전, 무료로 진찰을 받은 환자는 200여명에 달했는데 주로 중로년층이었다.

최근, 연변병원은 20차 당대회 정신을 깊이있게 관철하고 인민건강을 중심으로 인민대중의 날로 늘어나는 다양한 간호봉사 수요에 조정을 맞춰 환자간호 양상을 중시하고 전문 플랫폼을 구축하여 부동한 분야의 전문 간호인재를 양성함으로써 환자들에게 우수하고 전문적이며 개성화된 간호봉사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 ‘5.12’ 국제간호사의 날을 전후해 연변병원에서는 광범한 대중을 위해 해인 과학보급 자선진료 활동을 잇달아 전개할 예정이다.

/오건기자

/사진 연변대학 부속병원



# 연변 12개 양로기구 등급 평가서 해당 별점 획득

연변조선족자치주민정국에서 개최한 2023년도 양로기구 등급 평가 시상식에서 알아본 데 따르면 일전 연변은 처음으로 연변내 양로원에 대한 등급 평가를 실시했는데 그중 연변사회복지원 등 12개 양로원이 해당 별점을 받았다.

전 주 양로기구의 규범화와 표준화 건설을 강화하기 위해 2023년 주민정국은 <길림성 양로기구 등급 평가 잠정방법>에 따라 제 3차 평가기구에 위탁하여 자원봉사자 등급 평가 신청에 참가한 21개 양로기구를 대상으로 등급 평가를 선정해 등급을 수여했는데 그중 연변사회복지원이 ‘3등급’, 안도현 제 3사회복지봉사중심, 연길시사회복지복지원(연길시연예원) 등 4개 양로기구가 ‘2등급’, 돈화시사회복지봉사중심, 왕청현사회복지원 등 7개 양로기구가 ‘1등급’으로 평가

했다. 양로기구 등급 평가는 성급 호텔 시상식에서 알아본 데 따르면 일전 연변은 처음으로 연변내 양로원에 대한 등급 평가를 실시했는데 그중 연변사회복지원 등 12개 양로원이 해당 별점을 받았다. 전 주 양로기구의 규범화와 표준화 건설을 강화하기 위해 2023년 주민정국은 <길림성 양로기구 등급 평가 잠정방법>에 따라 제 3차 평가기구에 위탁하여 자원봉사자 등급 평가 신청에 참가한 21개 양로기구를 대상으로 등급 평가를 선정해 등급을 수여했는데 그중 연변사회복지원이 ‘3등급’, 안도현 제 3사회복지봉사중심, 연길시사회복지복지원(연길시연예원) 등 4개 양로기구가 ‘2등급’, 돈화시사회복지봉사중심, 왕청현사회복지원 등 7개 양로기구가 ‘1등급’으로 평가

/연변라디오 TV 넷

# ‘가족공제’로 부모님 약 구매했다면 나의 중병보험 가입에 영향있을까?



5월 8일, 국가의료보험국 공식측은 문장을 발표하여 ‘가족공제’(家庭共济) 방식으로 보험에 가입한 부모, 배우자와 자녀의 약을 구매하는 방법과 관련해 대답했다. 일부 네티즌들은 만약 ‘가족공제’를 통해 의료보험카드를 부모님의 고향, 당뇨병 등 약품을 구매했다면 구매 흔적이 남아 앞으로 중병보험, 의료보험 등 건강고지 사항이 필요한 보험에 가입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기지는 북경, 상해, 중경, 하북 장가구 등 여러 지역 의료보험국에 전화해 자문했다. 관련 직원들은 모두 ‘가족공제’ 방식으로 가족들의 약을 구매했을 경우 건강고지가 필요한 보험에 참가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답했다. “가족공제란 가족이 자신

의 의료보험카드를 지불했을 때 본인의 정산 비율을 누리는 것으로 계좌의 돈을 사용했을 뿐 진료사 구매 기록은 가족의 의료보험카드에 남아있고 본인의 카드에 남아있지 않는다.” 북경시 조양구의료보험국 직원이 말했다.

/인민넷-조문판